

아브라함의 믿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 창세기 22:5

산에 오르기 전,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칼로 잡고, 불에 태워 버린 아이와 어떻게 함께 돌아온다는 말인가? 아브라함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사라가 낳은 이삭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손이며 이삭만이 자신의 땅을 물려 받을 아들임을 알고 있었다. 자식이 없어 다메섹 출신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와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 창세기 15:4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 창세기 17:19

아브라함은 계속 포기하려 했고 체념하려 했다. 그러나 그때 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말씀하셨다. 지금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이 가진 것은 포기도, 체념도 아닌 믿음이었다. 망설임 없이 칼을 휘둘러 이삭을 잡고, 번제로 태워 바쳐도 하나님께서 친히 다른 누구도 아닌 이삭이라 말씀하셨으니 죽임을 당해도, 태워져도 다시 살려 내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산을 오를 때 종들에게 말 한대로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돌아왔고 브엘세바로 돌아가 거기 살았다. 이 사건에 대한 신약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 히브리서 11:17-19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 창세기 22:20

그리고 “이 일 후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남동생 나홀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그 중 브두엘이 딸을 낳는데 이름은 리브가. 훗날 이삭의 아내가 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이어갈 여인이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이삭을 대신할 제물만이 아니었다. 약속하신 말씀을 함께 이루어갈 이삭의 배우자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내일을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일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과 완전한 신뢰다.